

200과700

— 육용업계의 Skyline —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축산물 특히 양계산물의 가격은 시세에 너무 둔감하다. 경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상품의 가격인상폭에 비하면 이견 사흘에 핏 죽 한그릇 먹지 못한 느낌보 거북이 같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계란 한개의 농장출하가격은 만년 10代, 부로일러 kg當 가격이 500원만 되었다 하면 업계가 벙글거리는 형편이다. 아무리 국민 식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이기로서니 이견 너무 하잖아요!

이 말은 양계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이면 대개 몇 번씩 느껴 본 녀두리 중의 한마디이었다. 사실 조석변으로 올라가는 일반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업자 혼자서 그 물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과점형태의 공산품들, 생산원가 기백원에 몇천원씩 받아 먹는 상품에 비하면 우리 양계산물의 경우는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 닭고기 값 kg當 700원代 !

76년 1월 25일경, 하이브로 kg當 680원 쟈 미브로 kg當 740원을 훑아했다. 그 동안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야 어떠한 기간에 사상 처음으로 닭고기 값 kg當 700원代를 마크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76년의 첫번째 경사, 이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1월 25일경의 신기록을 검토하기이전에 우리는 우선 전반적인 가격형성의 추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3년말의 비수요

표 1 년도별 비수요기 가격추이

〈대한 양계협회 조사 원/kg〉

월별	가격	월별	가격	월별	가격
73. 10	250	74. 10	310	75. 10	380
11	280	11	360	11	450
12	310	12	350	12	450
74. 1	380	75. 1	450	76. 1	580

기 가격과 74년말의 비수요기 가격과의 차이보다 74년말의 가격과 75년 말의 가격과의 차이가 월등히 높다. 이는 75년 말 비수요기의 부로일러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73년 하반기의 양계공황은 74년을 거쳐 75년에 호황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 현상은 공급되는 물량의 많고 적음이 생산물의 가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호황의 추세는 매년 이루어졌던 소위 김장철 불황을 극복해 내었고, 계속 고삐를 풀지 않은채 76년 1월의 신기록— 700을 통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수요증가에 대한 상대적인 생산량의 증가가 따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석유파동을 격으면서 경기침체속에 묻혀있다가 국제경기 상승기류를 타고 75년부터 서서히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나 양계업계는 73년 하반기 불황의 여파로 소멸된 생산여건이 전연 회복되지 못한채 75년을 맞이 하였으므로 수요증가에 대한 생산량의 상대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냈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예고 지표가 지난 11월부터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여 76년 1월 현재 1.6~1.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년두 석유발견 쇼크는 일시적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케하여 소비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쇠고기, 돼지고기의 파동은 점점

닭고기 소비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 반면에 생산량은 75년 전체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감소현상을 보였으며(표2 참조) 축산물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공포는 년말 비수요기를 앞두고 입추량의 멍칫거림과 육성된 성체는 75년 12월 말까지 가능한대로 출하를 서둘렀었다.

표 2 년도별 육용계 초생추 출하현황

<대한양계협회조사 단위 : 만수>

년도별	월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74년	75	20	182	212	236	219	210	165	142	107	101	92	76년 1월	
75년	117	135	171	237	283	236	222	187	182	153	108	110	110만예상	

76년 1월 25일경 닭고기값이 kg당 680원을 훑가할 때 육계업자들은 구정 때 7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출하를 동결시켰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은 kg 당 몇십원씩의 손해를 보고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76년 1월의 신기록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생산원가를 고려한 수익성은 어떠한가? 물론 1월의 출하성체는 75년 11월의 130~150원짜리 초생추이며 2월의 출하성체는 75년 12월의 160 짜리 초생추이었다. 올해 1월부터 형성된 초생추가격 180원을 기준할 때 육계 kg당 생산원가 470원 - 만약 겨울의 나쁜환경하에서 자칫 잘못하여 육추율이라도 나쁜 경우, 혹은 초생추를 수당 200원씩에 구입한 경우 원가는 5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76년 1월말까지 출하된 닭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좋았다고 할 수 있으나 2월 15일 현재 kg당 500원선-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어쨌든 알맹이가 있었던 없었던,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잠깐 빛을 보인 가격이었을 망정 76년 1월의 신기록-닭고기 kg당 700원은 양계업계의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 성수기까지만 해도 600원이라는 숫자에 오랫동안 생소해 있었고 그 난관을 극복한 뒤 이제 반년도 못되어 예기치 않았던 700고

지에 올라서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새로 맞추어 입은 양복의 서먹한 감이 세련되어 가듯이 익숙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kg당 800원대이다. 육상경기 선수가 자기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기 위하여 기초체력을 연마하고 다리의 부분근육을 단련시키고 영양섭취를 하고 술을 먹지 않고 끊임 없는 훈련을 시도하듯이 우리 육용업계도 목표달성과정중에 깔려 있는 수많은 장애물 요소를 지혜롭게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 당장 우리의 앞에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과잉요소가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양계업계는 지난 1961년경부터 2~3년을 주기로 항상 불황을 겪어 오고 있었다. 다른 대동물에 비하여 시작과 확장이 쉽고 축소와 폐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생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므로서 생산과잉현상은 항상 주기적으로 나났던 것이다. 75년 가을 필자가 H양계기구제작소에 들렀을때 서울 시내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람이 1억을 투자하여 산란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케이지 구입에 대한 상담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동시에 양계기구제작업자는 밀려드는 주문쇄도에 몸둘바를 모를정도이였으며 의뢰한 주문량은 최소한 2개월 뒤라야 배

달가능한 상태였다. 최근에 양계기구제작회사가 상당수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양계업의 앞을 예시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육계업계에도 밀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확장하는 증설업자, 새로 시작하는 신규업자. 채란에서 육계로 전환시키는 양계업자——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육용계 초생추의 가격을 앙등시키고 다음에 울 생산물가격 폭락의 장본인인 것이다.

육용업자에 있어서 현재의 가장 큰 애로점은 병아리 구입문제이다. 가격의 높고 낮음은 고사하고 우선 구입하기가 힘들다. 어떤 업자는 약 2개월동안 초생추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텅 빈 계사를 마냥 놀리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초생추 구입난을 단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화업자와 육용업자와의 대화 한 토막——

“여보, 김선생 막걸리 한잔 하십시오. 내가 한잔 사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술은 내가 사죠.”

“허허, 안될 소리, 그런 뒤에 병아리 한 파스 빼 먹으실려구.”

“허 참 병아리는 틀림없습니다.”

“아니죠. 그래도 안되죠. 막걸리 몇 천원어치 사놓고 약추 몇 마리 섞어 주실려구요! 헛허.”

병아리를 팔지 못해 육계업자에게 애걸할 때와는 정반대이다. 실제 약추를 섞어 판매한다든가 45g 정도의 초산중란으로 부화한다든지 다른 품종들을 섞어서 국산 무엇, 수입계 무엇이라든가 하이부르에 세미부르를 혼합 판매하는 예가 허다한 실정이다. 심지어 병아리 커미션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니 병아리 구입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육용초생추 수당 200원! ——사상 처음으로 육계병아리가 200원까지 올라갔고 산란계 병아리보다 더욱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75년 12월 말까지 150~160원하던 것이 76년 1월부터 180~200원으로 팽팽한 가격을 이루고 있다. 부화업계의 말에 의하면 부화업자의 마

음 내키는대로 거래한다면 수당 250원 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업계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보면 우리에게 육용업자들은 꿀 먹은 벼어리가 된채 눈만 멀뚱거릴 수 밖에 없다.

부화업자가 육계업자에게 당하는 때와 육계업자가 부화업자에게 굶질거리는 경우는 수없이 되풀이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호라 믿음이여! 그때는 과연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이러한 와중에서도 부화업자 본연의 자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강건추병아리만을 적정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가들이 간혹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특히 충주지방의 부화업자와 육계업자들과의 상호협조는 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 육계업자들은 2~3년전 양계 대공황시 육계병아리가 수당 30~40원씩 외상으로 마구 뿌려질 때 부화업자를 살리기 위하여 수당 100원씩에 그것도 가능한 한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현재의 부화업자는 강한 병아리만을 항상 110원에 판매하다가 최근 들어서 육계가격이 700원대로 뛰었을 때 겨우 수당 130원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

◎ “200과 700”

이 숫자는 76년에 처음 기록된 복합적인 面 面들을 내포하고 있는 마술의 숫자이다. 국민소득 1000\$을 이루는 80년대. 축산물 소비의 격증은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축산업의 규모도 현재의 2.2배정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나친 호황은 업계집중팽창을 초래하고 이는 또한 불황의 요인이 된다. 200과 700의 숫자가 명멸하고 있는 현재의 육용업계의 skyline은 교외의 능선같이 부드럽지가 못하다. 이는 마치 복잡한 도시, 서울의 skyline과 너무나 비슷하다. 현대식 고층빌딩과 허물어져가는 판자집 지붕의 선이 뒤섞인 현 업계, ——현명한 경영자는 이러한 상황을 명쾌히 분석하여 사업운영의 묘를 꾀할것이다.